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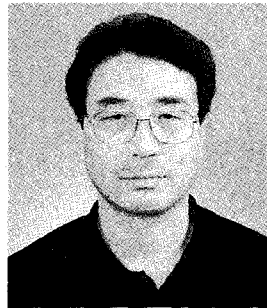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모조 분유수입이 가중되고 있어 분유재고를 14,000톤을 쌓아두고 있으며, 업종조합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낙농가를 비롯하여 낙농에 관련인들이 만나면 낙농문제 해결책에 관하여 반문을 한다. 그러나 대책다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업친데 덩친격으로 국제 사료 곡물 상승 요인으로 사료값이 급등되어 2차례에 걸쳐 약 20%인상이 되었으며, 잔유물질 검사강화, 환경오염 단속 강화, 원유 위생등급 강화, 소값하락 등 중복되는 문제들이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농가와 유업체는 경영난의 어려움에 못이겨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책 마련이 없는 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율경쟁시대 낙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낙농가 스스로의 자주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고 느껴지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자조금제도가 정착하여 생산자 단체가 대외 교섭력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농림부에 상정되었는 낙농진흥법이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낙농가 스스로의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소비촉진 활동에 직접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양학자 Mccollom(맥콜럼)박사는 「우유와 유제품을 높은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켜 왔다」고 말하였으며, 영국의 수상 처칠은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의 영향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완전식품을 정부, 유업체, 생산자, 소비자가 마음을 모아 협력한다면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한우는 국제경쟁력을 갖춰 해외에 수출할 전략품목이 아니다



황도정
경기육우회장

농림부의 쇠고기 수입개방(2001년)에 대한 산지소 값 정책목표가 500kg기준 200만원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내의 생산여건에 따른 원가 산출이 극히 잘 못된 것이다. 한우는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출 전략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우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쌀을 먹고 김치를 먹듯이 한우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렇기에 축산농가는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한우육을 생산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축산 농가는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물질 잔유물문제와 절박도축우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에 항생물질 잔류물문제는

첫째, 사료회사에서 마지막 비육완성단계의 사료에 대하여 향후 문제 발생시 보상차원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 축산 농가는 안이한 사육 방법에서 탈피하여 내가 생산한 쇠고기가 최고의 육질과 안정성 있는 고기가 될 것이라는 지부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축산관련 공무원과 유관단체로 하여금 비육농가에 대한 현장위주의 철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여 육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된다.

또한 절박도축우 문제는 참으로 축산농가에 괴로움을 주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있는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축산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절박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식육 불·가 여부를 가려 축발기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금으로 폐기처분을 전적으로 맡아주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료값인상은 국제곡물가가 인상되는

마당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과 유통구조개선(각 사료회사에서 엄청난 DC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음)을 통하여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소값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외적인 문제(광우병, 절박우부정도축, 0-157대장균 등)에 대하여 언론에서 너무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

낙농인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계 동
건국우유연합낙우회장

90년대를 접어들면서 우리 낙농산업은 많은 역경과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낙농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몇번에 걸친 유대지불 체계의 변경, 사료의 지속적인 인상, 소값하락, 광우병, 절박도축우, 고름유우 파동, 0-157등 이 루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로 많은 격동의 세월이 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 WTO출범 등 세계화 및 개방화에 따른 대외적인 압력까지 우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주위에 산적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유를 짠다는 것은 낙농육우산업이 다 그러하듯이 현 우리나라 낙농의 여건상 농후사료 의존형 목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대인상보다는 사료값의 인상폭이 높아 그에대한 차이를 농가에서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며, 96년도 7월부터 세계화 및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새로운 유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낙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된 조치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선진낙농국의 국내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지사이나 우리나라의 낙농 현실이 역사적으로 보아 연륜이 짧고 전업농 규모보다는 부업농의 형태로 유지되는 규모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정부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반감마저 가져보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낙농가들이 착유실에서 착유를 시작하기 전부터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농가에서 CMT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유대지불체계의 변경에 따라 좀더 좋은 등급의 원유대금을 받기 위해 검사 결과 양성판정의 개체 및 분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착유를 하여 폐기처분 시키고 있으며, 치료를 실시하여 완쾌되면 다행이나 치료 불능인 개체는 도태우로 매각을 시키는데 소값이 폭락되어 도태우 가격으로 대체우를 구입한다는 것은 농가의 가계부담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고 있다.

또한 치료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생, 항균물질 잔류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판정을 받아야 납유가 허용되